

보도	2025.3.18.(화) 14:00	배포	2025.3.18.(화)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책임자	국 장	이 진	(02-3145-8170)
		담당자	팀 장	이상진	(02-3145-8190)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책임자	실 장	나승호	(02-750-6801)
		담당자	팀 장	이대건	(02-750-6868)

금융감독원-한국은행 공동 기후금융 컨퍼런스 개최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25.3.18.(화), 한국은행 컨퍼런스홀에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제로 기후금융 컨퍼런스를 개최
 - 동 컨퍼런스에서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사(14개)가 실시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더불어 일본 및 홍콩 금융당국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사례를 살펴보고
 -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현황을 짚어본 뒤 기후위기 시대에 향후 금융권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제시

금융감독원-한국은행 공동 기후금융 컨퍼런스 개요

- 일 시 : '25.3.18.(화) 14:00 ~ 18:00
- 장 소 : 한국은행 컨퍼런스홀
- 주 제 :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및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방안
- 주요 참석자 :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환경부 장관, GGGI 사무총장 등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등으로 국제적 기후위기 대응 공조가 약화되는 움직임도 있으나, 미래를 위해 적극적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 또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탄소감축이 장기 경제성장과 금융 안정에 이익이므로 긴 안목의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고탄소 배출 산업이 밀집한 지방에 경제적 영향이 크므로 지자체 및 지방 소재 금융사는 더 많은 관심 필요함을 언급
 - 향후 기후리스크 감독방안으로 저탄소 전환금융 활성화 및 녹색여신 관련 인센티브 부여, 지자체 등과의 협력 강화 및 전사적 기후리스크 관리시스템 도입 유도 등을 제시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에도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금융권, 한국은행과 지속적으로 논의와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표명
 - 또한, 환경부는 '기후위험 영향 분석모델'을 확대 개발·제공,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금융권이 보다 거시적·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발표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영사에서 기후 리스크가 폭염·극한호우로 인한 물적 피해와 탄소감축 과정에서의 기업 생산비 증가 및 자산가치 하락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에 파급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 금융기관이 물리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자(risk manager)로서, 전환 리스크에 대해서는 녹색 전환자금을 공급하는 위험 수용자(risk taker)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설명
 - 또한, stress test 결과 기후 리스크가 금융안정을 훼손시킬 수 있는 핵심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금번 컨퍼런스가 한국경제 전반의 구조 전환 노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세션 ①]

- 한국은행은 기후정책 도입 강도 및 시기에 따라 달리 설정한 4가지 시나리오*와 금융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

※ [발표주제] 기후 시나리오 소개 및 한국은행 하향식 테스트 결과

* ①1.5℃ 대응: '50년 탄소중립 달성, ②2℃ 대응: '5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 대비 80% 감축, ③지연대응: '30년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탄소중립 정책 추진, ④무대응: 기후정책 미도입

- (시나리오) 2024~2100년 중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설정하고 각 경로별 실물경제 파급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후 리스크가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1.5℃ 대응 경로가 가장 작고, 무대응 경로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

- (하향식 테스트) 기후 리스크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규모*는 무대응(45.7조원) > 지연대응(39.9) > 2℃ 대응(27.3) > 1.5℃ 대응(26.9) 순으로, 1.5℃ 대응의 경우 손실규모가 '50년경 최고점을 지나 감소하는 반면, 무대응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 확대

* 기후 stress test TF에 참여한 1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추정한 신용·시장·보험손실

- 이 경우 은행 BIS비율은 $\Delta 5.3\%p$ 에서 $\Delta 7.6\%p$ 까지 하락 가능하며, 보험 K-ICS비율은 $\Delta 13.6\%p$ 에서 $\Delta 26.1\%p$ 까지 하락할 가능성

- (평가) 향후 기후 리스크는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안정을 훼손시키는 핵심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기후 리스크 감축을 위해, 은행은 신용손실에 대해, 보험사는 시장손실과 풍수해 관련 보험손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
- 업종별로 보면, 기후대응 정책 시행 시에는 고탄소 제조업에 대해, 무대응 시에는 식료품, 건설업 등 기후취약 업종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여신 규모 1조원 이상 36개 금융사*에 대해 신용리스크를 중심으로 실시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

* 은행 17, 생보 10, 손보 9

※ [발표주제] 금감원 하향식 및 금융사 상향식 테스트 결과

○ (결과 개요) 무대응 시나리오 下 25.1조원, 탄소중립(1.5℃ 대응) 시나리오 下 19.5조원의 신용손실을 추정 (2100년 기준)

- 무대응 및 탄소중립 시 은행권 총자본비율은 각각 $\Delta 3.8\%p$, $\Delta 3.1\%p$ 하락 가능하며, 보험권 K-ICS비율은 $\Delta 2.9\%p$, $\Delta 1.8\%p$ 하락 가능

○ (개별 금융사) 국내은행 총자본비율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최소 자본규제비율*을 충족하나, 무대응 시나리오 下에서 7개 은행이 최소 자본규제비율을 하회(2100년 기준)

* 총자본비율 규제수준: 11.5%. 단, D-SIB인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우리는 12.5%

○ (업종별) 신용손실 발생은 70% 이상이 철강 등 고탄소 배출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 자연재해 손실 민감 업종에서 발생

- 지방 소재 금융사의 손실율(1.3%)*이 시중은행(2.0%)을 상회하여, 고탄소 배출 산업이 밀집한 지방일수록 선제적 기후리스크 관리 필요

* 손실율 = 손실 / 기업여신 잔액

[세션 ②]

- 일본 금융청은 일본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실시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유하고, 일본금융청의 기후리스크 감독정책과 기후리스크 관리 전담조직(모니터링 허브)을 소개

※ [발표주제] 일본 금융당국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 일본 금융청과 일본 중앙은행은 파일럿 기후 시나리오 분석('21년), 시장리스크 추가 분석('23년), 2차 기후 시나리오 분석('24년) 등 총 3차례 공동 분석을 실시
 - 녹색금융협의체(NGFS)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일본내 3대 은행 및 3대 손보사를 대상으로 신용 및 시장리스크에 대한 분석
- 일본금융청의 기후리스크 감독정책은 지배구조, 기후리스크의 식별·평가, 고객의 기후리스크 관리 지원, 정보 공유로 한국과 유사

- 홍콩 통화감독청은 최근 홍콩 소재 46개 은행(은행권의 약 90%) 대상 2차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 소개

※ [발표주제] 홍콩 금융당국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 1차는 '21년에 시행되었으며 27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

- 녹색금융협의체(NGFS)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2℃ 이하, 지연 전환, 무정책 등 3가지 가정에 따른 2050년까지의 장기 시나리오와 기후 충격과 경기침체를 동시에 가정한 단기(5년) 시나리오도 동시 활용
- 홍콩 통화감독청의 테스트도 2℃ 이하 시나리오에서 지연 전환 또는 무정책 보다 장기적으로 더 유익한 결과를 시사

[세션 ③]

- 한국은행은 국내은행·보험사(총 62개사)를 대상으로 기후 리스크 관리 현황을 설문한 결과, 대형 금융기관(21개사, 34%)을 중심으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리스크 평가 체계를 구축중임을 확인

※ [발표주제] 금융권 기후 리스크 관리 현황

- 다만, 대부분 기관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이며,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활용한 실질적인 기후 리스크 감축*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평가

* 기후 리스크 취약 익스포저 축소, 녹색·전환금융 취급 확대 등

- 국내 금융사는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과정에서 장기시계 분석에 따른 불확실성과 관련 데이터 부족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당국이 공통 기후 시나리오 및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주기를 희망

- 이에 한국은행은 '24년중 한은·금감원·기상청이 구축한 공통 기후 시나리오를 지속 개선하고, 동 시나리오를 금융사에 제공하여 금융권 기후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계획

- 금융감독원은 향후 기후리스크 감독 방향으로 저탄소 전환 자금의 원활한 공급 지원, 지자체·지방 소재 금융사와 협력 강화, 전사적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

※ [발표주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활용 계획 및 향후 감독방향

- 탄소저감 효과가 입증되었으나 현재 녹색기준을 일부 충족하는 투자도 활성화하고, 녹색여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지방 소재 제조기업에 대한 탄소감축 컨설팅 제공 확대, 탄소감축 설비 투자시 대출 취급조건 우대 등을 제공하도록 금융권 협력 강화

-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에 따른 지배구조 구축, 전략 수립, 리스크 평가 및 관리, 공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KB금융그룹은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체 지배구조, 전략 및 저탄소 전환 자금지원 사업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

※ [발표주제] 국내 금융사 기후리스크 관리 사례

- 효과적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그룹 차원의 전략·목표 수립, 이행현황 관리를 추진중
 -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및 글로벌 공시기준 준수를 위해 선제적 기후리스크 공시를 강화중이며,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금융 자산 리스크 평가 및 포트폴리오 전략에 반영중
- 한편, 저탄소 전환 지원을 위해 친환경 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중

4 | 평가 및 기대효과

- (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 금융감독당국, 한국은행, 금융회사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제시하고, 해외 금융당국 사례를 살펴보는 등 국내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향후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감독당국과 중앙은행간 협력을 지속하고,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 강화 추진
- (기후리스크 인식 제고) 기후리스크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대응전략 논의
 - 고탄소 배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경제 구조에 맞춰 금융권의 적극적 저탄소전환 자금 공급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분위기 조성

-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자체 모형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관련 저변 확대
 - 금융회사간 추정결과 차이 등은 각사별 방법론 및 적용 가정 등에 대해 점검한 후 비교가능성 확보방안 마련 검토
- **(환경규제와 금융권 영향)** 탄소감축 정책이 국내 경제 및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측정을 통해 탄소감축 비용 절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공
- **(정책 불확실성 대응)** 美 파리협정 탈퇴 등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공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하에서의 탄력적 기후리스크 감독방향 제시

<붙임1> 금융감독원-한국은행 공동 국제 기후금융 컨퍼런스 개요

<별첨1>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개회사

<별첨2>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환영사

시간		내 용	
14:00~14:30 개 회 식			
	개회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축사	김완섭 환경부 장관	
	환영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14:30~15:55 【 세션 ① 】 금융권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주제발표	기후 시나리오 소개 및 한은 하향식 테스트 결과 (한국은행)	
	주제발표	금감원 하향식 및 금융사 상향식 테스트 결과 (금융감독원)	
	토론	(좌장)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
		(패널)	나승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장)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종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15:55~17:00 【 세션 ②* 】 해외 금융당국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사례			
	주제발표	일본 금융당국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일본 금융청)	
	주제발표	홍콩 금융당국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홍콩 통화감독청)	
	토론	(좌장)	인소영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교수)
		(패널)	이은하 (신한금융지주 부장) 노경원 (교보생명 CRO)
17:00~18:00 【 세션 ③ 】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와 향후 감독 방향			
	주제발표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현황 (한국은행)	
	주제발표	국내 금융사 기후 리스크 관리 사례 (KB금융지주)	
	주제발표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활용 계획 및 향후 감독 방향 (금융감독원)	
	토론	(좌장)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패널)	이 진 (금감원 금융시장안정국장) 김경남 (KB금융지주 상무) 이용복 (삼성화재 CRO)

* 영어로 진행 (동시통역 제공)